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공 추진 다짐

전북도, 실무부서·프로젝트별 주관 연구기관 등 참석해 추진상황·향후 계획 공유 보고회 가져

전북도가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초광역협력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와 세부사업별 담당 부서, 프로젝트별 주관 연구기관 등 총 17명이 참석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광역협력프로젝트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또는 협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광역적 경제·생활권역의 형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의 13개 초광역협력프로젝트 사업을 확정했다.

프로젝트당 5,000만원의 기획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은 총 3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동서내륙벨트조성사업(전북·경북·충북·충남)은 전북도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웨이징후면헬스케어 밸리 조성사업(전남·전북·광주·충남), 천연자원 식의약소재 개발사업(전주·전남·경북·충북·충남)은 참여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동서내륙벨트 조성사업"은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공동이용 및 상호보완적인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가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초광역협력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토내륙에서 저(低) 발전된 영호남 지역의 발전속을 강화하는 복안이다.

동서내륙벨트조성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선정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5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시 초광역협력프로젝트로 발굴된 사업 중 선정되지 않은 지·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전북·경남·충남), 초광역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육성사업(경북·전북)은 지역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은 과밀화돼 몸살

을 앓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균형발전 문제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북도가 보다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살아있는 나비 150종 관찰

전북도자연환경연구원, '나비생태학교' 운영

환경교육 전문가인 '전북도자연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나비 생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인 '나비생태학교'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무주군 안성면에서 있는 전북도자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18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청소년과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나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나비생태학교'에서는 9개월간 총 150여 종의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계획이다.

이는 남한에 서식하는 나비 종수(210여 종)의 약 80%에 달한다.

나비를 다루는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특히, 해남 두륜산 일대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녹색부전나비'를 비롯해 '긴꼬리부전나비', '남방제비나비', '붉은띠꿀빛부전나비' 등 보기 드문 나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표본 전시나 성충 관찰 위주로

구성된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참가자가 직접 나비 애벌레를 키우며 알부터 성충에 이르는 성장과정 전체를 관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짝짓기, 산란, 월동, 생존전략 등 나비 생태의 특징은 물론 나비 사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다.

4~9월에는 월 1회 전국 각지의 나비 서식지로 현장학습을 떠나 시기별, 서식지별로 나타나는 생태 특징을 학습하고, 각 지역의 대표종과 희귀종 나비를 관찰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학습 내용과 관찰 기록을 토대로 한 개인 도감 제작도 지원된다.

김종만 전북도자연환경연구원장은 "살아있는 나비 150종은 전문가 몇 년을 투자해야만 볼 수 있는 규모"라며 "지난 몇 년간 나비사육

시설을 갖추고, 먹이식물과 나비 사육에 투자해 온 전북도자연환경연구원이기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본격화

17일까지 건축설계 공모 신청·6월 7일까지 작품 접수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 공모가 실시된다.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대표도서관의 본격적 추진도 전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8일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응모작품은 6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건축·구조·토목·조경·설비 등 제반 분야의 계획과 녹색건축계획, 에너지절약계획, 장애물없는생활환경계획, 사업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외부공간계획, 지역 대표도서관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창의성 및 독창성의 건축미가 표현될 수 있는 조형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는 건축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도서관 분야 전문가 등 9인의 심사위원이 6월 15일 심사한 후, 6월 1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품 설계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타 입상자에게는 입상자 수(1인~4인)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유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도 대표도서관'이 국내의 가장 선도적인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자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부지 내 2만3,400㎡에 건축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2022년 착공해 2024년 완공계획이다.

도서관 내에는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063-280-3387)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북도가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도는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금 총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양식업 재해보험은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목과 일부(특정) 지

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가입할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보험료 등 궁금한 사항은 전화(1588-4119 또는 063-463-0764)로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재해 발생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을 활용해 피해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많은 양식어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시장의 첫 수출길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정읍시, 대학, 실용화재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도내 생산 식육가공품 유럽시장 첫 수출길 열어

전북도는 8일 도내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으로 첫 유럽시장(알바니아) 진출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읍에 소재한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우리비엔비가 천연돈장케이스 16톤(9,000두분)을 유럽연합 미가입국가인 알바니아에 수출하게 된 것이다. 천연돈장케이스는 돼지 소장을 이용한 천연소시지케이스로 식감이 좋아 고급 소시지 가공 원료로 사용된다.

이날 유럽시장의 첫 수출길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정읍시, 대학, 실용화재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수출분(16톤, 9,000두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마친 뒤 오는 14일 부산항을 출발해 4월 17일경 알바니아(동유럽)에 도착할 예정으로, 현지검사를 마친 후 고급 소시지 원료

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산 천연돈장케이스 수출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알바니아 정부(유럽연합 미가입국)와 수출검역조건을 협의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천연돈장케이스 제조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인증을 획득한 (주)우리비엔비(대표 박상혁)는 "국산 천연돈장케이스 수출을 위한 다년간의 노력 끝에 이번 수출을 이뤄 냈다"며 "매년 500톤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육가공품의 우수한 상품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향후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